

문 대통령 ‘깜짝 카드’ 박지원의 화려한 부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에 전격 발탁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중대기호에 놓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미칠 박 내정자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정치9단’ 이 국정원장에 내정되면서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 내정자는 내정 직후 SNS를 통해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며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내정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박지원 역할론’은 그동안 심심치 않게 거론돼 왔으나 실현 가능성에는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의견이 엇갈렸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통일부 장관 또는 북한과 관련된 일정 부분의 업무를 맡을 것이라는 예측과 더불어 한때는 국무총

국정원장 전격 발탁... 교착 남북관계 돌파 ‘승부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끌어...광주·전남도 기대감

리 기용설까지 나왔다. 본인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의 역할론에 대해 실지 않은 반응과 함께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기도 했다.

박 내정자의 국정원장 전격 발탁은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정면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업적인 남북관계가 위기 국면에 봉착하면서 북한을 견제하면서도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북한통이자 친근하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박 내정자를 동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42년생인 박 내정자는 1980년대 미국 뉴욕 한인회장을 역임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민주당 대변인 등을 거쳐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 공보수석, 정책기획수석,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2000년에는 대북 특사를 맡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다. 이때 함께 방북했던 인물이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 과장이다.

이후 박 내정자는 “정치를 하는 목표는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승,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박 내정자는 대북 정책 전문가로서 왕성히 활동했다.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특별수행했는데 당시 야당 의원으로는 유일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한 박 내정자는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바람을 극복하지 못하고 낙선했다. 지역정치인 가운데 가장 높은 37%를 득표했지만 5선 고지에는 실패했다.

그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낙선과 관련해 “최선을 다했지만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은 내 부족의 소치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박 내정자는 “자주 변화를 선택하는 그런 해안에 대해서는 존중 하지만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어 정치권의 중진과 인물을 키워야 한다”며 “영남은 그래도 홍준표와 김태호는 살려주었듯이 호남도 최소한의 불씨는 살려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며 아쉬운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음 총선에서 복귀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박 내정자는 “다음 총선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제가 복귀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이 시민통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기월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 요청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지만 또 의문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임 국정원장에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을 내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4월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전남도, 한우 송아지브랜드 ‘소득증대’ 효과

전국 최초 시행...마리당 시세 높게 거래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한우 송아지브랜드 사업이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으뜸한우 송아지’의 평균 경매가격은 일반 한우송아지에 비해 마리당 최대 43만원 더 높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은 한우 개량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2018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전남도와 한국축육개발협회, 시·군,

지역축협 등이 참여해 올해까지 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전남 으뜸한우송아지’는 ‘전남 으뜸한우(우량한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시군이 진자확인고 선발기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선정한 품질이 우수한 송아지다.

전남도는 전남 한우송아지 BI 디자인을 개발해 선발된 으뜸한우·송아지의 귀표에 장착하는 등 일반 한우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올해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

대상지역을 기존 4개 시군(고흥, 강진, 곡성, 화순)에서 3개 시군(영암, 무안, 장성)을 추가 확대해 7개 시군을 대상으로 1만5,000두의 ‘전남 으뜸한우송아지’를 선발할 계획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한우 산업의 경쟁력은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가능해 앞으로 고품질 우량 송아지 브랜드화로 도내 한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우 농가들은 전남 으뜸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에 참여해 전남산 한우 차별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 ‘코로나19 안전신고제’ 운영

안전신문고에 코너 신설

광주시는 5일 “코로나19 차단 위해 이달부터 시민 누구나 방역수칙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는 시설 등을 활용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를 신설해 전방위적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안전신고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방역취약시설과 방역수칙 상습 미준수 시설 등을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코로나19 안전신고 대상은 ▲방역수칙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상

습위반시설 ▲고위험시설 등에 관한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명령 미준수 시설 ▲자가격리 및 격리시설 수칙위반 행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제안사항 등이다.

오는 14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앱과 포털 모두 ‘일반신고란’에 신고하고, 15일부터는 새로 마련하는 ‘코로나19 신고’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정민권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광주 지역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 7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현재 방역상황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며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적극 실천하고 일상생활 주변의 코로나19 취약시설 등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광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 무더위 쉼터 감염 예방 강화

전남도가 본격적인 폭염을 대비해 ‘무더위쉼터’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실내 무더위 쉼터 7,480개소에 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는 무더위쉼터에 대해 ▲수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밀접접촉 최소화 ▲마스크 의무 착용 등을 강화한다.

또 밀접접촉 최소화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 도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 위주로 야외무더위쉼터 690개소를 추가로 발굴해 별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16만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검 전문인력과 노인돌봄비 등 재난도우미 2만2,000명을 운영해 전파로 폭염 상황을 전파하고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기 브리핑

김원이, 전남가정어린이집 연합회장단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의원은 지난 4일 목포 지역사무실에서 5차 유달정담 시민경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청회는 신경옥 전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목포, 무안, 영암, 순천 지역 8명의 회장단과 조옥현·최선국·박문옥 전남도의원, 박창수 목포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신 연합회장은 “전국 가정어린이집이 3만4,000여개로, 통과된 정부 추경예산 412억원은 2만5,000여명에만 한정돼 있어 추가로 요청된 4,000여명의 예산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와 질의 차이에 따라 보육에 차이가 발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에서 보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현실을 반영한 균형 잡힌 민간 어린이집에 관한 지원을 통해 격차를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 ‘우박피해 복구비’ 3억 지원

전남도내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로 3억원이 확정됐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6일 순천과 곡성, 고흥, 보성 등에 내린 우박으로 참다래, 매실, 고추 등 피해를 입은 236개 농가 120

여ha에 대한 피해 복구비로 이달 중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시군별 피해면적은 보성 56.2ha를 비롯, 곡성 55.8ha, 고흥 4.4ha, 순천 3.5ha 등이고, 품목별로는 참다래가 36ha, 매실 32ha, 고추 11ha, 토란 5ha, 사과 5ha 등이다.

농약대 지원단가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참다래·매실 등 과수의 경우 ha당 199만원, 채소류는 192만원이다.

50% 이상 피해 시 지원한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19만원이 지급된다.

창조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

다스코(주)는 흥인인간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며 보람을 공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매출 5,000억원 목표

SOC사업

가드레일 / 교량난간 / 터널 방음벽 / 방음벽

신재생 e.사업

육상태양광 / 수상태양광

건축자재사업

합판탈형 데크플레이트 / 스틸 데크플레이트 /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WBM사업

구조용 선조립 / 용접철근(WBM) / BIM모델링

신기술 개발 선도업체 다스코가 4차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

www.dasco.kr

본 사 전남도 화순군 동농로길 26-2 TEL. 061)370-2144 총칭남도 당진시 함덕읍 연천로 1361-15 TEL. 041)431-8200
 서울지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9길 26 비지니스파크 C동 801호 TEL. 02)3440-7800 당진2공장(단 열 재) 충청남도 당진시 함덕읍 함덕산단1로 50 TEL. 041)431-8259
 영남지사 부산시 동구 초량동로 29 KCA빌딩 405호 TEL. 051)518-3702 새만금공장(W B M)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산 불력 2로

다스코 가족회사 다스코 | **솔에코(수상태양광)** | **세라코(점토벽돌, 외장재, 수처리)** | **가스코(가드레일, 교량난간)**
엘도우(커튼월) | **학교법인흥인학원(영산중·고등학교)** | **흥인(부동산 임대업)**